

제438회 국회
(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4. 업무현황보고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 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 o 소위원장(이수진·강선영) 인사 3
 - o 소위원장(박지혜) 인사 4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 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6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4. 업무현황보고 9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 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2025회 계연도 결산 상정과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이후에 결산에 대한 대 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일 오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참석 관계로 우리 위 원회에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차관이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 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 정 수를 각각 8인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 정수는 4인으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수진 간사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강선영 간사님께서,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원님께서 각각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하여 3개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이수진·강선영) 인사

(11시09분)

○위원장 김정재 세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간략한 인사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법안소위 잘해서 국민들께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정말 역할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평등가족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국민이 열심히 일하시고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잘 운영하는지, 예산편성은 또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결산은 그 세금을 잘 여하히, 기금을 다 쓸 수 있는지, 잘 쓰는지 잘 감독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혜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전체회의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인사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사실은 곽상언 위원님과 손솔 위원님이 계신데 오후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법안,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의 심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정재 운영과 관련해서?

○이수진 위원 예.

○위원장 김정재 말씀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위원회에 회부되고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위해서 법안 상정 및 법안소위 일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진행되는 전체회의 그리고 9월 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143건에 이릅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 청소년, 위기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법안 상정이 어렵다라고, 법안소위 일정 협의도 어렵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강선영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법안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간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이수진 간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회의에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서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금은 특히 결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회의는 중점이 결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아직, 소위원회 구성 오늘 했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검토하려면 좀 시간을 드려야 되겠고 저희가 또 겸임 상임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도 어제랑 그제 이틀간 국방부 결산심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방부는 예산이 한 70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꼼꼼히 보다 보니까 사실은 느린 듯 보이지만 더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저희 일정 잡는 것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을 위한 성평등가족위가 되도록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맙습니다.

○ 소위원장(박지혜) 인사

(11시13분)

○위원장 김정재 그리고 좀 전에 도착하신 이번에 청원심사소위원회 박지혜 소위원장님 축하드리면서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원심사위원회는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국회가 꼭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원 심사 연장 요구의 건도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임 상임위원 만큼 또 더 더욱 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게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저희가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고맙습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11시14분)

○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하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진 위원 이의는 없는데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관련해서 이수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연장을 심의하게 되는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는 6·25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업소가 들어서자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설치한 의료격리시설로서 경기도 내 6개 시군 성병관리소 중 하나였습니다. 73년도에 세워진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당시 연간 수용 인원이 약 5000명에 이르렀던 시설로서 확진자를 격리했던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이후 미군 감축 등으로 기지촌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1996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여성에게 저질러진 국가 폭력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장소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청원소위 회의 때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진술인은 동두천에 갔다가 신원 미상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성병관리소에 강제 감금되어 페니실린을 강제로 투여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을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증거이자 증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를 포함한 소요산 관광 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동두천시와 주민들의 입장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에 대화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동

안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대화협의체는 올해 4월과 6월 그리고 어제 오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있지는 않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비록 오늘 청원심사 연장을 하게 됐지만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도 사실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 위원이셨던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동두천 성병관리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청원소위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만큼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대위 측 의견과 또 동두천시의 입장을 두루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살펴서 위원장님과 강선영 간사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면 어떨까입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청원 기간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대화협의체가 지자체와 또 해당 이해관계인들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협의와는 별도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고 결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11시19분)

○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성평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1377억을 징수 결정하여 85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7억

6100만 원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5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18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7089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90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지역지원계정 877억 1300만 원과 지역자율계정 39억 5000만 원을 합한 916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99.7%인 913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총 9235억 5400만 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총 1824억 6600만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향후 정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기타경상수입 관련하여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에 편성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5.3%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보조사업 불용액 반환금이고 미수납기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 아랫부분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집행률이 5.3%에 그치는 등 2022년부터 저조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립 부지가 2026년 1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해당 부지에의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8년가량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의 경우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40개사 중 62개사가 2회 이상, 5개사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므로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공표 대상이 되

는 사업장의 여성 채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관운영출연금의 근거만 있으므로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과 유사하여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률이 76.4%로 전년보다 1.4%p 하락하였으며 바우처 신청률 91%에 비해 이용률은 83.1%에 그친 바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바우처를 미이용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정책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과 설계 검토 및 건축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26.6%로 저조하고 집행액 대부분이 건설보상비에 집중된 반면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는 404억 8400만 원에서 528억 8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사업 기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는 바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건축 협의 등 선행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분기별 공정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족전용상담전화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가족전용상담전화시스템 교환기 교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산 반납되어야 할 인건비 집행 잔액을 예산 변경하면서 해당 경비를 자산취득비성 경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계상한 문제가 있는 바 향후 자산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비용은 각각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출연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비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지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집행률이 97.7%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실행률은 84%에 그쳤으며 사회복지무요원의 신규 배치 지연과 복무 연기 및 중도 소집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계획보다 짧은데도 현행 예산편성 내역이 집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바 실근무기간 등을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실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정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결산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전체회의 산회 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현황보고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1시27분)

○위원장 김정재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성평등가족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성평등가족부를 제외한 6개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창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존경하는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국가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등 성평등 거버넌스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균형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공론장을 운영하고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고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삭제 요청으로 피해 지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부터 처벌과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역량도 확충하였고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

원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도 넓혔으며 양육비 선지급과 회수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더욱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 속 성평등을 확산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가 전 부처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공론장을 통해 발굴한 성별균형 정책의제를 사회적 논의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채용 시 AI 활용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편향도 세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AI 대전환에 맞추어 청년 여성이 AI 기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 확산의 근원인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는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피해자의 치료·회복과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조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맞춘 가족센터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고 진학과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과 국가자격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는 경제·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상 위기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상담1388의 상담과 긴급 연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행 위험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보호·사례관리와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게는 전문인력과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는 방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교육·자립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상담, 학업, 진로와 건강지원을 연결하여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입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청소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입니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최문선 대변인입니다.

김권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민아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윤세진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가로 가족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최은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성평등가족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같음하고 9쪽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평등정책 논의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생리대를 보급하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청년 공론장 및 정책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52개를 새로 열고 AI·바이오 같은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무력화

를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인력을 확대하였고 자살, 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도 확충하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관련 공론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가구의 지원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누적 7372가구 1만 1631명의 자녀 양육비 1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5쪽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 속 성평등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성평등 정책 전달부서를 24개 부처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양성평등센터로 나뉘어 있던 전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성평등센터로 개편하겠습니다.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위해 청년 공론장을 지속 운영하고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AI 활용 확산에 따른 성별 편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성평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금 고용상 성별 격차를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 점검과 컨설팅도 함께 병행해서 여성 고용과 관리직 비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 취업과 창업, 경력 유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제조기업의 업무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재직·구직 여성에 대한 AI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불법유해사이트 개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국제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장관이 차단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나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참여형 교육으로 전

면 개편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관장 관련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자를 조력한 사람도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성매매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과 그루밍 피해까지 포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 청소년의 자립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권익보호기관에 연계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확대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친밀관계 폭력과 관련하여 교제폭력 처벌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분석 제도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 회복과 주거 지원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한부모나 조손가족처럼 취약·위기가족에게는 가족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소통·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12만 6000 가구까지 확대했고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수당과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7300개까지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도 확대해서 지역 돌봄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주거·생활안정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했고 미혼·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민의 신청 없이도 지방정부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은 상담, 소송, 추심, 제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의 위기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

담사가 곧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중앙센터, 통합관리시스템까지 갖춰 상담 대기를 줄이고 112·119와의 긴급 연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과 지역 협업을 연계한 원스톱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 지원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거·교육·자립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장일터 사업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급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학업·진로, 직업훈련, 건강검진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 강화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치유캠프를 확대 제공하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이용 역량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해정보와 유해환경 점검, 유해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 활동, 방과후아카데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장께서 인사하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평원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 진흥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더욱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성인지적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성별 고정관념을 돌아보는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주류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직군별 강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최신 현안을 반영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영화 상영회 등 대국민 확산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신규자·경력자 단계별 직무교육을, 공공기관·대학 등 대상별로는 폭력예방 및 성평등 사이버교육과 교원 원격직무연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대국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와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전국 시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넓혀 가는 한편 성평등 교육 콘텐츠 플랫폼과 국민 참여 기반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누구나 성평등 가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삼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하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진흥원에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600여 개 피해지원시설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신종·복합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인신매매 등 피해자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보호·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이행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에 대한 탐지·삭제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디지털 아카

이빙 및 온라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련 국제교류와 학술활동, 유네스코 등재 지원 등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이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서 앞으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김진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2010년 설립 이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을 충실히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등 핵심역량 맞춤형 활동 모형과 AI 기반 진로·체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교류와 공교육 연계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격차 해소 및 경제·금융 의제를 발굴하는 정책 참여와 인문·사회 분야의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활발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계층 간의 체험활동 및 돌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학교 안팎 방과후돌봄 지원을 내실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체험 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체험 기회를 넓히고 대상 맞춤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지도자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정책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활동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여 교류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전문연수와 글로벌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개편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 이관과 현장실습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콘텐츠 제공 확대로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교과과정과 연계한 보급형 인증수련활동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흥원은 청소년이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진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전국 630여 개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청소년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청소년AI·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SNS 플랫폼 내에서 자살·자해·가출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살위험군 청소년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과 청소년안전망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가능 연령 도래로 사례관리가 종료된 아동을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해 후속 사례관리를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살·자해 관련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형 마음by안전망을 활성화하고 16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양성 등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 협력을 통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매년 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민관 자원을 지속 발굴·연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살·자해, 사이버폭력 등 청소년의 주요 위기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국 약 3500개 기관의 또래상담 운영 내실화로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또래 청소년들의 조기 개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출된 약 4만 7000여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현장에서 청소년 문제에 보

다 전문적이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 중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앞으로도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 위기 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발굴·지원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한정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입니다.

새로 구성된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세 가지 중점 과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244개 가족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150만 명 이상의 이용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및 이주배정가족 지원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춘 현장 중심 과제를 발굴해서 시범 추진 중이며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 주간으로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가족센터 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해서 가족서비스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만여 명에게 국가자격을 발급했습니다. 공공 전달체계 고도화는 물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기능도 강화해서 국가 책임 고품질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주도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식개선 활동과 대국민 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있으며 단 한 가족도 소외되거나 또 차별받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4일에 전국 규모의 다문화 어울림 엑스포를 개최하여 정책공유-산업연계-시민참여가 선순환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구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 안녕하십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입니다.

먼저 22대 국회 하반기 성평등가족위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원의 업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전과 정책 제언은 향후 사업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행원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은 일차적으로 현장 중심의 소송 지원과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2026년 7월 말 기준 누적 양육비 3055억, 누적 양육비이행률 50.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통한 고질적 채무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지속하면서 소송으로 받아 내기 어려운 양육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시행 1년을 맞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까지 해서 1만 243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9억 원 상당의 지급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담 징수 부서를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재산 및 채무자 주소 조회 그리고 신속한 전산 압류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전산망 연계를 현재 대부분 완료한 상황이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회수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혜택을 봤다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전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원은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일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전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사실은 본 회의가 산회한 이후에 하기로 협의가 됐었는데요.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오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세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건 위원님 그다음 김남근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미리 공지받으셨다시피 주질의 5분으로 하고요. 3분은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차관님,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라든가 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평등가족부 징계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본부에 모두 8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중 절반인 4건이 성비위입니다. 2022년에는 사무관이 견책을 받았고 2023년에는 또 다른 사무

관이 감봉 1개월 그리고 2024년에는 파면, 올해는 강등 처분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매년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데 성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방 교육이라든가 내부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평등부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 공무원으로서 징계 사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성비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장차관으로서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늘상 복무 기강과 특히 성비위 관련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직 관리, 복무 기강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데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께도 제가 여쭙보고 싶은데 2024년에는 일반직 4급 과장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게 사실입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삼화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무겁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조차 소속 직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한테 충격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조직에서든 개인의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평등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다른 기관보다는 예방 교육이나 조직 문화,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더 철저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진흥원의 예방 교육이나 내부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삼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희는 성평등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평원에서는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시행했고요. 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특히 사건 발생 부서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주변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조직이 전체적으로 2차 피해 방지 및 성인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적절하게 처리해서 기관의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양평원은 2024년의 성희롱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처리를 했고 보다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도 올해 성희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 저희 본원은 아니고 저희 산하 치유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하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그 이후인데요.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받고 각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또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즉각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차관님, 산하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과 조직 문화,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 이렇게 성희롱 사건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든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요즘 경찰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잘 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국감 전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차관님,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나 인력 정보 같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임금 격차 같은 게 성별상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고 개선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평등가족부에 제출만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부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김남근 위원**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잘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보도록.

그런데 문제는 공시 공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상에 있어서의 공시 의무라는 것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의 판단이라든가 어떤 주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지금 고용평등공시제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상에 있는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이 보는 DART 같은 데다 이렇게 공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시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 경영계에서 큰 우려가 자칫 이게 투자자들한테, 예비적 투자자들한테 이런 정보가 알려지고 또 그렇게 해서 소비자 불매라든지 또는 성차별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고용평등공시제라는 것을 운영하는 서구 유럽 국가들은 투자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투자자들이 알게 돼서 투자하는 데 판단을 하게 되면 우려된다 그래 가지고 대상 기업들의 의견들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방식으로 공시하겠다는 그러면 굉장히 무효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최대 금융투자 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 중에 여성 이사가 없다,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투자 철회도 한다는 말이에요, 개선 조치를 직접 요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공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성평등가족부가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 이게 공시돼서 시장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소위 ESG 경영 이런 차원에서 남녀 성차별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지배구조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라 이런 요구를 해야지 그게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구나 그러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데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려된다 이렇게 하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하고 완전히 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알고 그런 개선 조치들을 직접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이러한 사항을 볼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남근 위원 국민들 일반분들도 보시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 설명도 한번 하고 기업만 만나실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스톡홀름 활동이라 그래 가지고 그 기업이 제대로 된 ESG 활동을 하는지, 특히 남녀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투자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투자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설명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앞으로 투자자를 포함해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시가 정확이 되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평등가족부의 결산보고나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성평등정책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보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가 대면 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또 성평등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상황 중의 하나가 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전 부처로 확산시키는 과제가 있는데 이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는 단순히 각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 기관의 법령·예산·사업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부처 내의 양성평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도입이 돼 있었는데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성평등정책담당관이 도입된 부처는 8개 부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특히 재정경제부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행안부 이런 경제산업 부처들이 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아직 도입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경제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평등 관점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도입된 8개 부처 가운데서도 교육부나 국방부나 그리고 대검찰청을 보면 대부분 내부인사로 이것을 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평등정책담당관제의 제도 취지를 보면 전문가가 와서 성평등 관점하에서 예산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보라는 취지인데 내부인사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처 내의 관행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인사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의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과거의 7 대 3 비율에서 5 대 5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모르겠어요. 제가 청주인데 충북을 포함한 지방들을 보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돌봄 전문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국고보조 비율을 줄여 버리면 결국 지방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부담이 안 되면 이 아이돌봄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데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왜 이렇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감축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지방비 부담액이 1590억에 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대로 7 대 3으로 해서 국고보조 비율이 변동 없도록 그래서 이전에 해 오던 지방의 아이돌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먼저 성평등 거버넌스 관련해서 위원회 대면회의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고, 지금 사실 장관님 오시고 모든 위원회가 대면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담당관 관련하여서 경제부처가 포함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산업부라든지 재정부라든지 중기부 같은 경제 관련 부처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부처를 올해 안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24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들을 내부 공모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모해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부에서도 가능하면 개방해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는 식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일부 내부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내부 공무원이 들어와 있는 부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외부 공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돌봄 책임제 관련해서 아이돌봄 지방비 부담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책임이기도 하고 국가사무라는 면도 있고 또 재정 당국으로서는 지출구조조정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좀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이번에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아이돌봄서비스가 국가사무기도 하고 또 지방사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도록 기획예산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시기 전에 아직 인사 못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곽상언 위원님 그리고 손솔 위원님 두 분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 위원님 부터.

○**곽상언 위원** 그동안 인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고요 이름은 곽상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고 위원회 활동 적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저만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는데 동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늦게 보임됐는데 부지런히 다니고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 여성들 이야기를 성평등가족위 통해서 많이 하고 싶고요. 그게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 폭력 문제 그리고 돌봄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2030 여성들의 삶에서 차별과 폭력이 없고 안전한 일상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질의시간 5분입니다—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처음 와서 처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성평등부 지금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총 11개입니다.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11개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제가 이름을 쭉 봤는데 이름이 굉장히 다들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다문화가족, 중앙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위원회, 인신매매방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그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적은 위원회를 보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지금 열한 분 계시고 가장 많은 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도 여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여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들도 매우 많지요. 불과 얼마 전에도 TV 보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사실 잘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 없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고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이런 폭력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그 존재에 맞게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동의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장관, 저입니다.

○곽상언 위원 장관님이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혹시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게 언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작년 9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대략 한 1년 되셨네요.

혹시 지난 5년간 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됐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여쭙보는 이유는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열한 곳이 있는데 열한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위원들이 계신 가장 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면 다른 위원회도 대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지금 취임하신 1년 되었으니까 대략 업무 파악은 되셨을 텐데, 혹시 지난 5년간 몇 번 정도 열렸는지 아시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난 5년간 서면, 대면 포함해서 한 15회 미만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저희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아마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회의가 다섯 번 그다음에 온라인 회의가 다섯 번 그리고 만나서 회의한 대면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면회의는 장관님께서 주재하셨을 겁니다.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을 따지게 되면, 아까 최근 5년간 몇 번 열렸다고 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5회 미만의 회의가……

○곽상언 위원 크게 답변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5회 미만의 회의가, 5년으로 하면……

○곽상언 위원 15회 미만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한 번 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열한 번.

그렇지요? 1년에 평균 두 번쯤 되겠네요.

그런데 서면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회의하는 건가요? 이메일로 회의 안건 보내고 답신 받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온라인 회의는 혹시 진행시간이 몇 분 되는지 아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온라인 회의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대면회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지난 5년간 대면회의는 딱 한 번 했고 장관님께서 주재하셨어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회의 진행 횟수나 형식이나 방법을 보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보완해야겠다고 보이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인신매매, 친밀관계폭력 관련 그 3개의 분과를 각각 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올해에도 분과별로 회의를 열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그래요. 국감 때 좀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곽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실제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는 당연히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여성폭력 방지 분야라는 거는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서른 여덟분의 위원 모두를 모시고 하는 회의보다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나눠서 각각의 위원회를 오자마자 바로 개최했고요. 올해도 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아마 이어서 국감에도……

○곽상언 위원 작년에는 가장 많이 여셨습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거의 안 여셨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국감 때 또 하시겠지요.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은 질의하셨고요. 다음에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의정부시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엑스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유통과 관련해

서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 이렇게 밝히신 거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지혜 위원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데요. 전년보다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지원 피해자가 특히 전년보다 26.3%가 증가했는데 이 말은 디지털 성범죄에 반복·재유포되는 특성이 있다.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 온 대응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을까,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를 정말 끊어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성평등가족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AI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런 대응 방안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말 안 듣는 해외사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니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사이트의 95.6%가 해외 소재 사이트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트들에 삭제 요청을 하면 잘 삭제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얼마나 응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8%정도……

○박지혜 위원 18% 정도 말씀하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지혜 위원 해외사업자들이 불응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18%라는 건 82%가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삭제요청 한 건수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만 건이 넘어요. 삭제요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삭제요청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률을 높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불응하면 사업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식별해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이 특별히 마련된 게 있으실까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바로 그 대책을 저희가 8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삭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고 불법 사이트 무력화가 답이다 그래서 수익 차단하고 강력한 수사 처벌 강화에 대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과거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때 한 번씩 관계 부처가 모여서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번 대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책이 세워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과 함께 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장관님께서 계속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업자는 분명하게 식별하고 그 이력을 추적해 가지고 불응이 거듭된다 그러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 대응 체계를 꼭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지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인신매매와 관련한 건데요, 저희가 보니까 놀랍게도 2020년에 500건이었던 인신매매 범죄가 2024년에는 2배가량 늘었다고요. 989건인데요.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피해자 권익보호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피해자 권익보호 기관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오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기존에 2022년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지방정부에 지역 권익보호 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지역에 권익보호 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설치 직접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지역 권익보호 기관에 대한 설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좀 틀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중앙기관 전담인력이 3명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잖아요. 중앙기관의 전담인력이나 예산이나 지원체계를 더 빨리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여러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제가 부처에 오기 전에 저 역시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관련 구조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평등부 인신매매 관련 정책이 더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특별히 챙기고 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장관님, 오전에 안 계셨지만 인사말씀 보통 첫 페이지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필요한 변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모두의 생리대 사업 목적이 뭔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처음 언급됐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 때 12월에 그때 이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리대가 비싸다. 그 비싼 원인이 독과점 시장 구조에 있다’. 이걸 지적한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1월 20 날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하라’, 생리대 가격 문제의 대안으로 무상공급이 나온게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 3월에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니까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해서 생리대 물가인하 효과를 도모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무상배포가 어떻게 물가인하를 도모하지요, 어떤 경제학 원리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바뀌어서 제가 사업 목적이 뭐냐고 다시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7월 16일에는 그 사업 안에는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생리대 가격 안정 도모 이 내용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생리대 가격 안정 도모 이게 전 여성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가격이 안정되는 것,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은 그냥 모두의 생리대라는 무상공급으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물가인하랑 가격안정,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제출하신 사업 목적을 보니까 물가인하 또 가격안정성은 빠졌어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 이 내용은 없어진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소희 위원** 모두의 사업의 사업 목적에 물가안정, 가격안정은 없어진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러니까 가격안정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인하는 결국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목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가격안정은 자연스럽게 이 사업에 당연히 추구되는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안정……

○**김소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무상배포라는 걸 해서 32억을 들여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하시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셨는데 일단 무상배포를 통해서만 시중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금 이 생리대 시장은 독과점 구조는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주요 제조사 3사 아시지요? 유한킴벌리, 깨끗한 나라, LG 유니참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한 조사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진짜 여성들을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 이것

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경쟁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작업도 동시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무상배포를 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을 했는데 공공조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벤처기업인 해피문데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4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벤처기업은 낙찰가도 낮았고요. 더 낮은 가격에 유기농 순면커버 제품까지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했어요. 기존의 독과점 3사한테 밀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들을 더 많이 경쟁시켜서 가격을 낮추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 독과점 기업의 구매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상 배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독과점 기업을 깨야 될 판에 공공조달을 통해서 이 3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 주겠다는 결과로밖에 지금 무상 배포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다시 한번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사업 목적이 뭔지 정확히 그리고 가격 안정 효과는 어떻게 가져올지 그리고 지금의 공공조달 구조는 괜찮은 건지, 제가 지적한 대로 그리고 향후 만약에 이런 사업들에 문제가 좀 있다 하면 향후 전국 확대 계획까지 다시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중기벤처부가 모두의 창업하면서 한 번 또 실패를 하셨잖아요. ‘모두’가 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모두의 생리대가 또 한 번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드리고 제가 요청드린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흔히들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 채널의 다변화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와 생리대 구입 가격 부담 완화에 분명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던 담합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공정위 조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담합 여부와 무관하게 저희가 이번에 생리대 조달 과정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조달계약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생리대 품질과 업체의 납품 실적, 사업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그중 최저가 업체가 최종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벤처 그 업체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경로로 저희에게도 생리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셨는데 저희는 조달청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처가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관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조달청의 지금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독과점 3사가 공공조달을 가져가게 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오려면 부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나가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등원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한복이 국민의힘 이달회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한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달회 위원님 같은 분들은 참 입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성평등가족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단정적으로 안 입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김정재 저는 안 입는다고……

○백혜련 위원 이번에는 꼭…… 위원장님 입으시면 아름다우십니다.

○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잘 어울리실 것 같으니까 우리 성평등가족위 위원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체액 테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액 테러가 발생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막 고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손괴죄로 제가 볼 때는 처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요즘에는 강제추행으로도 많이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니까 어떤 신체 부위에 닿았을 때는 강제추행, 신체 부위에 닿지 않았을 때는 재물손괴나 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똑같은 체액 테러를 가지고 신체에 닿았을 때는 강제추행, 아닐 때는 손괴라는 범죄로 처벌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손괴라는 것은 물건을 부수거나 이런 것이지 체액을 묻히는 게 손괴라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지가 않잖아요.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지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그나마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할 때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보호되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호가 틀리잖아요. 물론 성평등가족부에서 다행히 성폭력 범죄만이 아니라 가급적 지원, 그러니까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해 가급적 지원이 조항이 있더라고요—조항은 아니고 행정지침이지요—이거에 따라서 그나마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이게 성폭력법으로 처벌받았을 때 피해자 보호와 그렇지 않을 때 피해자 보호는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강제추행이라고 할 때는 신상 정보라든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런 거에도 다 여러 가지 걸리지만 그냥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

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건데 이번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정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도 처음에 체액 테러가 무죄 판결이 나온 적도 있어서 너무나 법조에 있을 때 당황스러웠고요. 좀 더 강력하게 이게 입법화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 효과도 따를 것이다 생각하고 체액 테러는 현재 의율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넘어서는 피해자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안기는 강력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스토킹법 제정 과정을 보면요 스토킹법 처음에는 그걸 독자적인 법령으로 만든다고 할 때 정말 다들 의아해 했어요. ‘이 법을 독자적인 법안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별도의 어떤 법적 개념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면서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체액 테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불법사이트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결국 이런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불법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수익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동의합니다.

○**백혜련 위원** 결국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저는 경제적 수익 차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질의를 준비하다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 불법사이트들이 광고를, 저는 이게 개인이 결제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개인 결제 금액이 아니라 광고 수익이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아시고 계셨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한 사이트당 2억 원 넘게……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어떻게 보면 주수입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라든지 성매매 광고 이런 거는 그나마 그런 불법사이트들끼리 연계돼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도박이나 성매매 같은 불법사이트만이 아니라 쿠팡이라든지 11번가 같은 이런 일반 쇼핑몰 광고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단에서 이번에 불법사이트들을 분석하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이후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그 전에라도 각 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이런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는 것인가 한번 논의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복 입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따로 1

분 따로 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이시고, 그래도 옷을 좀 자유롭게 입을 자유를 주십시오. 정말 저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웃음소리)

그다음에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혹시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기억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광주의 장윤기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공통점…… 여성 폭력 피해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성 피해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졌던 거 맞지요?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3건이 더 있었지요, 그렇지요? 구구절절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토론회 나와서 얘기한 것도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과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쓰시는……

○임종득 위원 아니요.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던 것으로……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의 입장이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경찰하고 검찰이 누가 우월하다 이걸 떠나 가지고 교차 검증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보완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한번 올려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성평등가족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내용의 답변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검토의견을 법무부나 정부 여당이 제출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당정 협의나 국무회의에서 기관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 장관이 발언한 적이 있느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없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니,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기존에 저희가 국무회의나 법무부에……

○임종득 위원 아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성가위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무슨 말씀……

○임종득 위원 성평등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성평등부라고 정부조직법상 축어로는 성평등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저희가 보호해야 될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는 현장에서 장관님은 침묵하셨어요. 페이스북에서는 네 번이나 올리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찌 보면 주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단 한마디 의견도 내지 않았는 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넘겨 보시지요.

성평등가족부가 이걸 방관하는 게 맞냐?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중에 87%가 여성입니다. 20세 이하가 33.7%입니다. 계속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예상되는 여성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임종득 위원 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번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과정, 검찰개혁의 과정은 기존에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 공감 하에 진행됐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는 그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종득 위원 여성과 아동의 주무 장관으로서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보완수사권 폐지……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이 내용 아시지요?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인데 안 읽어 봐서 잘 모르겠다는 책임 회피를 하고 계시고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책을 부처에 보고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관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법을 읽어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대통령, 또 단 한 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주무 장관이 합쳐져서 이게 통과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공감해 주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성평등부의 입장 또 장관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임종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내가 6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대책을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평등가족부의 대책은 뭘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25년간 법조인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1년 차 때 처음 한국여성의전화에 가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시작했고 변호사 1년 차 시작할 때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법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활동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과정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과 개정 이후, 전후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도 경찰청, 법무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채워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성폭력 등 젠더폭력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지원기관과 그리고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 변호사단의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가 초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된, 그 이전부터 계속 검찰개혁이 논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한 이후부터 제가, 아까 박상언 위원님 질의하셨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대면으로 개최하고 각종 전문위원회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정부, 우리 법상의 위원회만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계속 소통했고 주말이면 또 제가 진행했던 피해자들과도 전화를 통해서 최근에 근황을 물어보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제가 계속 제도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임종득 위원 제가 지금 변명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변명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몸을 담고 일을 하였고 또 여성 관련 일을 해 오셨던 분이예요. 그리고 이채원 양 사건 관련해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네 번이나 올리면서도 공감을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 본 적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내용하고 어찌 보면 주무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무 장관으로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대책이 아니예요. 지금 설명한 거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평등가족위의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김정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충분히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 가지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그 공백을 계속 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재 지금 답변한 말씀 쪽 듣고, 굉장히 귀담아들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사후약방문, 우리가 보통 그런 답변을 듣고 나면 사고가 다 난 다음에 아무리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무료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러셨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장님, 제 안타까움의 표현은 달리 좀 들어 주셨으면 싶은 게 경찰과 검찰 다 열심히 수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은 저도 알고 있는, 검찰에서 그동안 열심히 수사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그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재 아, 그래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재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국감 때 계속 또 논의가 될 거니까요.

다음으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청주시의원으로서 당선된 최영중이라는 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취임하고 선거도 치르고 그렇게 16일 만에 사퇴한 건인데요. 더군다나 3000만 원이 넘는 선거 후 비용까지 다 챙겨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저께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지요. 피해자가 더 늘었어요. 4명입니다. 어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상습 성착취물 제작했고 성매수, 성착취……

잠깐 좀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 중에 저렇게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재 누가 떠들었나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정재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임종득 위원 지금 누가 비웃는다는 거지요? 우리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임종득 위원 손가락질 하지 마요!

○이광희 위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됩니까?

○임종득 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봐요.

○조지연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왜 떠드냐고, 남 얘기할 때 왜 떠드시냐고.

○임종득 위원 둘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당 위원들은 안 해요?

○이광희 위원 이 양반들이 정말……

○임종득 위원 이 양반?

○이광희 위원 양반이지 그러면 상놈이예요?

○위원장 김정재 그만하시고요.

잠깐 멈춰 주세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 낮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 달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멈추고 제가 제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원활하게……

○이광희 위원 시간 원래대로 돌려 주세요.

○위원장 김정재 예, 당연히 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마음대로 싸우십시오. 그런데 불필요한 걸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걸 하지 말고요. 서로 좀 품위를 지키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다음에 다시,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정재 마음을 좀 가라 앉히시고……

○이광희 위원 예, 지금 화가 나서……

○위원장 김정재 지금 화가 나서 질의가 안 되니까 잠시 그러면, 아까 3분 54초…… 6초 더 넣어서 4분으로 해 주시고요.

이광희 위원님, 패싱해도 되겠지요, 또 다시 돌아오니까?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정재 그다음 조지연 위원님, 마음이 괜찮으세요? 멘탈 관리되십니까?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괜찮으세요?

○조지연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물론 국회에서 논의 과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피해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법안이 논의가 될 때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여부가 정말 야당에서도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장관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지만 사후에 대책들을 더 촘촘하게 장관께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16페이지에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직 내에 임금, 성별 고용현황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마이크를 좀 올려 주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고 해서 현재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들 중심으로 그 기업 내에 어떤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조지연 위원 어떤 항목들을 공시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기업의 평균임금 그러니까 중위 4분위별로 해서 평균임금과 관리자의 성별……

○조지연 위원 성별별 평균임금을 얘기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성별 비율 등을 공시……

○조지연 위원 그리고 성별별 고용 숫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ALIO)라는 그 시스템에 다 공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같은 경우에도 클린아이(clean-eye)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300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 한 4100여 개인가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현황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공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성평등가족부에서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한나라는 얘기입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평등과 관련된 업무가 작년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우리 부처로 넘어왔고요. 차이는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 존재했으나 실질적 고용평등에……

○조지연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 항목으로 따지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항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만 살아 있을 뿐 공시하는 항목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중복 사업들을 여러 개 펼칠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어떤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연계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 정말 영세한 기업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 전담 인력이 다시 한번, 정말 기업에서는 어떤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의 가치는 정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 고용형태가 굉장히 연공서열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와 또 성과와 여러 기준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걸 성별로 따졌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그 취지대로 공시가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개의 공시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공시제와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작은 기업들, 준비가 안 된 기업들에 저희가 고용평등공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AA나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닛트(DART) 등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직종·직급·고용 형태별, 남녀 일인당 평균 중위임금, 임금비율 그런 공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직장 내에서의 평등을……

○조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뭔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노동시장에 맞춰서 그 항목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과연 이거 공시했을 때 노동에 어떤 선별의 격차 없이, 차별 없이 그게 개선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물론 유럽에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유럽과 우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에 맞춰서 항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작 기업을 낙인찍기보다는 오히려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지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 고용평등공시제가 너무 세분화된 항목들이 공시될 경우에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경영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시작하면서 수용도를 보면서 조금 더 확장하거나 그 비율을, 조건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지연 위원 지금 경영계가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설계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사실 정확한 워딩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라고 저는 보이구요. 그러니까 저도 이 중의 한 사건을 사실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하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기존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부실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저는 바로 이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 사후적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구조적인 쇄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짧게, 동의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행히 지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의자 지원단체 요청이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지원 단체와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좀 더 보완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더 잘 논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인 장치들이 있지만 여전히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 만큼 정말 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보완장치를 잘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도 꼭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제가 오늘 좀 이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부의 업무보고 내용 충분히 잘 봤습니다. 제가 과방위 그리고 성평등위의 위원

인데요. 통섭적 관점에서 오늘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 꼭 제안하고 싶은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에 10대 자살자 396명 역대 최고고요.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18만 3000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가 무려 60%에 달합니다. 도박 경험 청소년 추정 15만 7000명. 자살, 도박, 성범죄 중독……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들 사이에 같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같은 아이를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살 문제 한번 볼까요? 10대 자살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직접 SNS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추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년마다 짧은 기간 안에, 올해 얼마나 심각한가는 조사를 하지만 왜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속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봤던 통계에서 올해 과의존위험군 18만 3000명, 아까 미디어 과의존, 이게 전년보다 3만 명이 또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중독이 되었던, 과의존했던 아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올해 그 아이들이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이것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째 같은 조사를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도 구분하고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바로 이런 횡적연구가 아니라 종단연구가 너무나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과방위 위원으로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영국, 호주, 미국 다 충분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본인들 나라의 청소년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안전법등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는 있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우리 청소년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는 조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의식은 장관님도 꼭 같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성평등부가 우리 청소년 보호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그 정책 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라도 넣어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5년 내지는 10년의 장기적인 추적조사 지금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연관하는 부처가 많은 만큼 범부처들을 통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꼭 성평등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합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과의존과 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과기부와 교육부, 방미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바와 같이 1명이 청소년을 두고 어떠한 피해에 노출되었는지, 중독성은 어떤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가을에, 이번 정부안에는 저희가 미처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이후에 넣기를 바라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 예, 같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이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위원님이 좀 팬썰아지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위원님의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질의를 2회로 쪼개서 2부작으로 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짱이라는 손을 들고 그러시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광희 위원님 순으로 잠깐 순서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정춘생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예.

○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은 성평등부에 통지하고 피해자가 아청센터 등의 보호나 혹은 지원 연계 절차가 있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를 전에 추가로 확인된 최영중 사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부터 인계받았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확인했더니 개인과 관련해서……

○이광희 위원 언론에서 피해 사실 발견되고 저희들이 성평등가족부에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연락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런데 원래 절차는 경찰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년과 미성년이 걸쳐 있는 경우에 성년이 된 경우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추가 피해자가 발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국민적인 공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즉시 보호받고 있는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다음부터는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성년이 되어 있으면 피해를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직접 통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표를 좀, 이것을 저희가 좀 했는데 성착취 피해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에 비해서 현재는 2025년 3배나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청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숫자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피해자 찾아내서 이런 센터는 1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정부안에도 더 인원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동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1126명이라고 하는 그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아청센터에서 상담한 사람들 정도니까 나머지는 훨씬 더 있겠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더 많습니다.

○이광희 위원 최영중 사건의 경우 최초 피해자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발견이 됐고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3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는 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그 피해자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최영중이라는 자는 선거를 하고 있었고 선거에 당선이 됐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최영중 휴대폰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으로는 13세가 넘어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손 안 대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어떤 식으로 아청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비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매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 뒤에 숨고 더군다나 시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센 사람의 경우는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누가 등 뒤에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보호하고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뒤에 있고 성평등가족부 뒤에는 함께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아청 센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식으로든 인력 증원이든 하여튼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매년 증가하는 증가율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제가 한 8년쯤 전에도 진짜 이렇게 성착취 피해를 입고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던 중에 또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공직선거법에 최영중 방지법이라고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 경력까지 받은 자조차 후보자

등록 시 서류 제출하도록 바꾸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관님, 저도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아니면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는 다 보호가 됐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닙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손솔 위원님도 계신데요, 법사위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대전환 하면서 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였고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부분이 없는지, 만약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검중에 영상녹화 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채수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 수사가 안 될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소인 등의 수사관계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다 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아동 성범죄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 전권 송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해당 관련 부처와 이 모든 제도 장치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럴 때마다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78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거든요.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장관님이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고……

1366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얼마 전에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보셨지요?

여기 보면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3조 3교대 근무로 죽음을 부르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건강하지가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서적 감정노동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선대책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366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으로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권고를 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정춘생 위원 답변이 좀 길어져서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366 센터가 중앙 말고 18개 센터가 있는데 대구하고 광주만 직영센터고 나머지는 다 위탁센터입니다. 보면 근속연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위탁센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평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또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총 237명이 센터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보면 여기도 위탁센터가 대부분이에요. 직영은 거의 퇴사가 없고 대부분 위탁센터에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센터 109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여기서서 모두 공무직으로 직접 채용합니다. 그런데 여성긴급전화는 직영센터만 공무직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입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좀 올려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 업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주세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해 주시고 노동환경도 평가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처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번에는 똑바로 해서 제시를 하시고요.

1366뿐만이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온갖 시설 관계자들의 처우가 다 열악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해서 최소 이 정도의 급여와 처우는 필요하다,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세수도 많이 걷힐 때 찢끔찢끔이 아니라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 예산안에는 반드시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1366 종사자들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주희 위원님과 같이 살짝 짊어고 넘어가자면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틈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기구를 정비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관님께서도 평생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애써 오신 만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전은수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박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가정을 벗어나서 보호시설에서 지낸 후에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부처가 가정박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로 나뉘면서 지원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전은수 위원 제가 우리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가정박청소년이 비교해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에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격차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립정착금의 전국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개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옮겨 다닌 경우 보호기간을 합산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5월에도 ‘같은 학대, 다른 지원…… 20살 자립청년들 출발선 왜 제각각’ 이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가정박청소년 출신 청년으로부터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직접 소통을 듣고 제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리면서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자립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데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쉼터를 거친 청년은 이러한 지원체계에 포괄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곳이 아동복지시설은 다 포함되는데요, 청소년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일부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시설만 포함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시설 유형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자립의 출발선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5월에 발표했는데, 청소년시설을 퇴소한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낮고 플랫폼노동 경험과 채무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저 역시도 가정박청소년과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간에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저희 담당자들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도 많은 어려움을 직접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게 아마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설 유형에 따라서 지원격차를 없애는 그런 통합적인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전까지 그런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생리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성평등가족부가 시범사업 중인 ‘모두의 생리대’는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본적인 위생용품으로 본다 이런 정부의 관점 담겨 있는 것 맞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은수 위원 그런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짧게 말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관리하는 한 여성청소년쉼터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에 이름과 필요한 수량, 크기 등을 적게 해서 방문자가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전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장관님, 스톡·교제폭력 대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손솔 위원 관계 부처와 합동해서 대응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토킹과 친밀관계 폭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다릅니다.

○손솔 위원 유형도 다르고 관계성도 다르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손솔 위원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반복 접근·연락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야 이 행위가 구성이 되는데 친밀관계 폭력은 사실 다양합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연인과 헤어진 뒤에 스토킹이라고 명명할 만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채로 살해가 벌어지거나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에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것들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스토킹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왜 안 만나 줘 살인’이라고 검색하면 데이트 폭력부터 해 가지고 비참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친밀관계 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안을 들고 오고 있어요. 법무부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19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관님, 친밀관계 폭력을 스토킹 이 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어떤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에 현장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도 만나 봤을 때, 또 이미 위원님들이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친밀관계 폭력 전반을 규율하는 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제폭력을 스토킹에……

○손솔 위원 장관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도 있고 친밀관계 처벌법 제정안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 이런 데에는 스토킹처벌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은 논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친밀관계 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완전히 대응해서 할 수 없다, 급하게 이거라도 하겠다 이런 뜻이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이 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은 없으니까 잠정조치로 다 넣어서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손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것은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더 말씀하시고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솔 위원 다른 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8월 19일에 법제처에서 임신중지약물 도입 관련해서 법령해석 내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봤습니다.

○**손솔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해석이 될 것 같고, 사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로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해서 계속 입법공백도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을 허가하는 것은 현재도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기속행위라고 법제처에서……

○**손솔 위원** 예, 기속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간에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미뤄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법무부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가 여름에 매우 적극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관계 부처가 논의를 했고 저도 매번 그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곧 아마……

○**손솔 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 부처가 함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이미 복지부에서도 그런 보고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솔 위원**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 정부 입장이 교제폭력을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담고 이후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개정 등 여성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을 논의하고자 했는지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법도 개정되기 전에 시간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여성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피해자지원단체에서 법무부장관님을 뵈는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 줄 정도로 최초로 법무부에서 피해자지원단체를 불러 모아서 어떠한 점들의 어려움이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장관님이 지원단체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셨고 이후에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해서,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셔서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뒤에 그 협의체에서 여성인권, 기존에 걱정하고 계시는 여성 안전을 보호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 개정 논의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성평등가족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슬 위원** 저는 가정폭력 처벌법 전부개정을 기본원칙으로 가져가되 그러면 그 잠정 조치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손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또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추진단에서 형소법과 공소청법은 물론이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법 개정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처벌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형소법 개정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개정해야 될 입법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야 의원님 할 것 없이 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들을 하셨어요. 스토킹 처벌법, 교제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나 이런데—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단다.

어쨌든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가 또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 전문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충실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에 여성폭력 범죄전담팀이 설치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또 법률 지원 확대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무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기타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사실 일반인들은 법률 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영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이든 검사든 스토킹범죄라든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해야겠지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이런 데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전문가 모니터링단이…… 지금까지도 안 됐던 것들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점점 안 하시면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어떠한

법체계 개선이 있어도 저는 성평등가족부가 점검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이다. 그 점을 명심하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수진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지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91.9%가 신청 가구 대비 연계가 됐는데 25년에는 86.9%로 하락을 했고 또 대기 가구도 2021년 6800가구에서 지금 1만 16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대기일수도 19일에서 39.4일로 증가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돌봄사들 월평균 118.8시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0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33.7%로 굉장히 많고요. 또 월평균 소득은 약 160만 원 수준입니다. 200만 원 미만 소득인 아이돌봄사가 52.9%나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이 2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돌봄사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로 이용 가구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인프라가 확대돼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아이돌봄사의 급여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역할이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아이돌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보니까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도 발급·시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돌봄사의 급여 조건과 처우 개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977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봄 노동자들,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급여를 많이 받고 처우가 좋은 직장, 그런 곳에 청년도 가고 싶어 하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데 돌봄 일자리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제대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도개선 방안 잘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짧게 앞에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이후에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수사 절차 등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권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현 제

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에 스톡킹 피해자와 관련해서 경찰과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함께하고 있는 상담소 등에서 피해자들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직접 챙겨 보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일부와 먼저 1차로 저희가 대면회의 하고 이어서 2주에 한 번꼴로 계속 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 이후에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과 더 밀접하게, 더 자주 제가 모니터링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틈새,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더 보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히 임종득 위원님께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피해자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 힘입어서 관계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뺐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그래서 대통령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권력이 생겼다.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또는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시간을 가지고 방향성은 정하되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공청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실제적인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했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반대를 했을까라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가장 피해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어야 할 아동, 청소년, 여성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과 약자들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관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강선영 위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교문화 속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존중받지 못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고 그 역할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이러한 양성평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임무와 기능에, 그다음에 많은 산하기관 기능에 성평등 정책 발전, 젠더폭력 대응, 가정의 안정, 청소년 보호. 중심에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1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호전성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은 미래 통일국가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왜 성평등가족부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까요?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요.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금 통일부에서는 북향민이라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영 위원 말고, 저는 북한에 있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북한에 있는 여성인권 문제를 저희가……

○강선영 위원 같이 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다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고민을 하지 않으시냐고 여쭙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일단은 우리 국내에 계신 여성분들 인권을 먼저 챙기면서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4시 10분경에 시작해서 시간이 1시간 30분 조금 더 흘렀는데 추가질의 할 위원님들께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3분씩 해 주시면…… 이번에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한 30여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썰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씩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최근 AI가 단순한 검색, 학습도구를 넘어서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상담하는 상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의존하고 정서적 의존 문제가 새로운 청소년 보호 이슈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국내서도 청소년 AI 부작용 이상 징후 경고음’ 이렇게 기사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살을 했는데 이유가 AI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평등가족부가 낸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보면 청소년의 AI 서비스 경험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4년에 67.9%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AI 과의존 문제가 현실적인 청소년 보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초1 중1 고1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서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을 발굴하고 발굴된 청소년들 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각종 상담·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디어 과의존 이전에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

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부분을 청소년, 저희들이……

(김정재 위원장, 이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건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AI 사용을 그냥 미디어 사용의 한 부분으로 같이 보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의 미디어는, 청소년들은 다른 미디어가 아니라 거의 다 AI를 통해서 미디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1388 상담하시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건 위원**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 대인관계, 과의존, 중독 등 유형별로 세밀하게 관리 하는데 거기에 지금 AI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는 안 잡고 계시거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 부분 더 잡아 가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잡아 보면 시간이 가면서 청소년들이 AI 중독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테니까 그것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대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건 위원** 대기 수요가 많은데, 자꾸 대상은 늘리는데 대기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에 보면 다 대책이 있던데 결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결국에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사로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저희 성평등가족부와 함께하시는 아이돌봄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심에 반해서 그에 따른 처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사로 등록하신 분들도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분들께서 좀 더 보람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아이돌봄사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지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장관님, 앞서 조지연 위원님께서 고용평등공시제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가지고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2023년부터 시행한 성별근로공시제 같은 경우에, 그 두 제도가 공시 항목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 단계, 근로 단계, 퇴직 단계, 각 단계별로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근로 단계에는 근속연수나 임금 비율 또 임원의 비율이 어떤 차이

가 있는지를 필수 항목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성보호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고용평등공시제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우선 대상이 기존에 성별근로공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평등공시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어서 대상부터가 먼저 확장이 되고 기존의 근로공시제에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자율 제출이었다면 저희는 그것을 의무 제출로 해서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사실 고용평등공시제는 직장 내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없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채용 단계 이후에 직장에서 유지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소들을 기업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고용평등공시제는……

○박지혜 위원 사실 공시제도가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공시를 했는데 격차가 크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지혜 위원 저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측정해서 봤을 때 사실 기업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는데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 우리가 혹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을 채용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지혜 위원 저는 이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500인 이상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도 8%에서 9%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도 설계하실 때 단계적으로 인원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지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단순히 500인 이상 지금 시행하고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신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맞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서 그 기준선이 오히려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서 기업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던데 그러나 저희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일정 기간 운영 현황과 정책 성과 등을 점검해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초기에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일본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에서 시작해서 100인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계속 안팎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재가 계속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여가 결국은 나라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좀 더 섬세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장관님, 저는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같은 여성으로서 매우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장관님께 당부하고 싶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그 부분에 누구보다 천착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고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논의할 때 여성단체들이 다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처럼 장관님도 여성 피해자가 우려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어야 된다고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주 52시간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각각 처한 타깃 대상들을 생각해서 부처 장관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을 대변한다고 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성을 위하는 부처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개정 논의가 될 때 부처 장관으로서 목소리를 꼭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소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스톡 관련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올 3월에 남양주 스톡 사건도 스마트워치 눌렀지만 경찰 도착하기 전에 살해됐잖아요. 실은 보니까……

두 번째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접근금지 나오는 것?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 이런 것 법원 인용률이 되게 높은데 구속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

PPT 보여 주세요, 접근금지·유치 통계 있는 PPT 있을 텐데.

이건데, 구속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쭙봤더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구속할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이것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해칠 위험이 분명한 것은 경찰이다 아는데 구속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넣어 주면 경찰 측에서 우리가 훨씬 더 구속을 해서 사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고 지금 법사위에 있거든요. 이 부분 예방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구속 사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 사건 이후에 왜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면서 잠정조치가 신청이 안 되거나 신청했더라도 기각되는가,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위험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인지가 뭔가 피해자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마침 저희가 이번 주에 관계 부처, 경찰, 법무부, 성평등부 그리고 법원의 연구에도 같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각 기관 이해도를 높이는 세미나도, 포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진행 이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소희 위원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이수진 위원도 그다음에 김건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심각합니다. 2026년도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쪽 받아 봤는데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6000가구가 늘어나요.

이 내용은 21년하고 25년 사이의 부분인데 신청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연계율이라든가 대기가구 그다음에 대기일수가 증가하고 있지요.

현장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을 해결 안 하면서 다시 대상 인원만 6000가구를 올해 더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결국에는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돌봄사분들의 처우가, 돌봄 영역에서 가장 애쓰고 계신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역에 들어오고 아이돌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조치를 한 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처우개선 조치가 완료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2026년 예산에 반영했다, 야간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렇게 하겠다, 이것으로 조치됐다고 얘기했어요.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조치됐다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지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산도 늘리고 있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활동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 처우개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수요 예측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2025년 영아종일제 관련해 가지고 계획상에 한 2500가구라고 했는데 실제 793가구를 했어요. 왜 이런 착오들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왜 그런 격차가 발생했는지 제가 오늘 질의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초 남았는데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대응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속지원 피해자 현황이 늘어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성과지표로서 삭제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으로 올리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종득 위원** 그러면 피해받는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수진 간사,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한 일이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대책들 다 가져와 봐라, 정부가 계속 대책을 세우는데 왜 피해자가 체감이 안 되는가, 왜 계속 재유포가 되는가, 매번 새로운 피해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가. 제가 장관으로 와서 결국 그렇게 대책 세우고 대책 발표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원단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재유포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지표 부분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결국 이게 첫 번째 유포든 재유포든 계속 어쨌든 피해지원기관의 노력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성과지표를 넣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피해자에게, 가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 더 추가가 됐는데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도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3분 딱딱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해서 죄송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지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재** 예.

○**조지연 위원** 고용평등공시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하겠다고 하는 그 항목, 어떤 항목들을 공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일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전에 장관께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넷이나 이런 데 보면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서 4100여 개 기업들이, 300인 이상 기업들도 고용 형태별로 성별 고용 형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닛트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알리오 그리고 클린아이 각각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항목 일체와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려고 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항목들 일체를 자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고용평등공시제 지금.....

○**조지연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정재**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장관님이 챙겨서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저희가 고용평등공시제 제도 고안하면서 다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전체 다 보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김정재 그리고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장관님, 지금 여기 기관장님들 다 계시는데 기관에서 올라온 주요 업무 현황은 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조지연 위원 그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오전에……

○조지연 위원 읽어 보셨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당연히 국회 제출 전에, 당연히 제가 살펴보고 제출 하게 됩니다.

○조지연 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8월에 오셨더라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 예, 8월 10일에 출근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장관님, 제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요 업무현황에 보니까 앞서 오전에 장관님께서 계시지는 않았는데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질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0%다,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산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요 업무현황에 보니까 이 사업은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하나도 적시된 게 없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착공한다라고 과거에 제출하셨던데 이것 하반기에 착공하는 겁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 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반기 공사 계약 및 착공 예정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조지연 위원 또 착공 예정인가요? 착공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원래 당초에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서 2028년까지 해서 2029년에 개관한다고 총 사업기간이 3년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비 예산을 다시 추계해 보면 404억에서 총사업비가 528억까지 29.3%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무를 하고 있는 진흥원에서는 전혀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시설 건립은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내 착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연말까지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거 대구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구시가 지금 국토부 산하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 문제로 난항을 계속 겪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전체 예산이 2조 남짓, 좀 넘는 수준인데 이 사업은 500억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결국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결국 예산 불용이 계속되면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 점점을 이사장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제가 직접 챙겨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꼭 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 먼저 PPT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평등공시제 오늘 좀 뜨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올해 이 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의 세 배 우리나라입니다. 2위 일본과도 지금 7%p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성별임금격차 1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기존에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가 있었지만 여성관리자 비율 연 0.3% 증가하는 정도 아주 느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표 기업도 매년 30개에서 50개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해서 정말로 고용 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왜 이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저는 정말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평등공시제의 효과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사례 보면 지금 영국 공시제 도입 이후 19% 성별임금격차 줄었고요 덴마크는 13%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공시를 유예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격차가 6%나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자체가 제도개선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미 해외 사례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고요. EU도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한 뒤에 회원국 전체가 법제화에 지금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부에서 이 제도 보완을 하실 때 이미 경영계 의견도 다수 절충하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가셨지만 아까 박지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적용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견에서 행정적 부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중소기업들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미 AA 대상 기업 2700개 넘지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매년 유사한 통계, 그러니까 인력·임금 정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렇다면 정부가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 정책이 도입된다고 해서 저는 추가 행정적 부담이 그렇게 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의무 도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도 정말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가 지금 잘 안착되었고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주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용평등공시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젊은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김정재 이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도……

○위원장 김정재 정춘생 위원님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가지고…… 하시려고요?

○정춘생 위원 예, 행안위 갔다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시간을 위원님들 조금만 더 지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 장관님, 고용평등공시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입법안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담았는데요. 이게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면서, 아시겠지만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임금격차가 해소되기에는 굉장히 무리지요. 같은 기업 내에서의 근속연수나 직급별 이런 거 할 수는 있으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육아기를 겪고 나서 파트타임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

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제폭력처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이 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으로 냈고 어떤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에 담아냈고 어떤 분은 교제폭력처벌법 단독 이렇게 냈는데 지금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규율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규율할 수 없는 교제폭력들이 있고 그거로 인한 살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입법인지 법무부하고 상의하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 답을 주셔야, 법무부를 저는 견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을까요,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법무부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작년에도 워낙 그때는 우리가 바로 입법이 될 테니 우선 이 법을 입법하자고 했었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기존의 그런 방향이 맞는지 저도 다시 한번 법무부와도 협의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새로운 업무도 많고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정기국회를 넘지 말고요. 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청을 하시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은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15쪽에 보면 청년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쩌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별균형 정책의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테토남, 에겐너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그런 논의들 공론장을 만드셨던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공개형 공론장이다 보면 100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모집은 50명 그리고 청년위에서 50명, 사실상 공개모집은 50명이었을 것 같은데 전국에 50명에 대한 공론을 하기에는 사실은 공론화를 했다 하기에는 좀 작다는 생

각이 들고.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을 오프라인 장으로 모여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찾아 보니까 유튜브나 이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려면 사실은 이제는 온라인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 부분들은 조금 재미있게 꾸며서 청소년들이 저절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온라인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고민을, 2차·3차가 남으셨던데 그런 고민들을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호남권 그리고 전국에 권역별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마음이 치료까지 이르기 전에 마음에 가벼운 감기 정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것을 재활센터 기능에 넣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장관님께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다음에 한번 같이, 보고도 해 주시면서, 저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실태도 경험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가깝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남긴 유일한 전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손술 위원님.

○손술 위원 장관님,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저희 의원실이랑 KBS랑 공동으로 자료도 분석하고 보도를 낸 게 있는데요. E-6 비자 알고 계시지요? E-6에서 유형 두 번째 비자가 우리나라의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은 사람 중의 84%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로 여성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이 비자를 이용한 여성들이 동두천, 평택, 군산, 칠곡, 미군기지 인근 유흥업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손술 위원 저는 이 비자가 이렇게 통로가 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비자 발급은 지금 법무부, 문체부 이렇게 같이 관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저희 나라에 권고한 바도 있거든요. 여성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감독 해야 된다, 그리고 연예공연업체 모니터링 필요하다 했는데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니까 현장점검이 1년에 한 차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권고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비자가 지금 인신매매, 성매매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수준의 점검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성매매가 되고 있는데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심각하게 봐 주셔야 되고, 이따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법 사이트 대응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불법 사이트에 혹시 성매매 후기 사이트도 들어갑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후기 사이트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지금 보시면 성매매 후기를 남기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여기가 성인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사이트 전체 방문자가 20만 명이라고 나오고 성매매 사이트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한 곳도 있고요. 여기에 후기를 남겨서 그 업체들로 연결이 돼요. 대단히 심각한데 성매매 관련해서 규제하는 게 업체에서 직접 광고하는 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후기를 남기는 거는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한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법도 필요하면 입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성매매에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말씀 주신 성매매 후기 사이트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방미심위와 협의해서 온라인 광고와 후기 사이트에 대한 수사과 차단도 더욱 강화하고, 국회에 마침 이 후기를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E-6-2 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 또한 거의, 정말 처음 E-6-2 비자가 도입될 때부터의 문제였는데 오랫동안 너무 정부가 방치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성평등부에서 관계 부처 문체부, 영상물등급위,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8월 달에 관계 부처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정책 개선을……

○손솔 위원 회의를 열었어요? 열 예정이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열었습니다, 8월 12일에.

○손솔 위원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때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단속을 더 하자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거는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점검만으로는 저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은 위원장을 배려해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간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을 배려하지 못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린 거에 대한 결론을 못 내서 결론을 내려고 그러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 여성인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 여성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법무부에서 발행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유린 대상 58.7%가 여성이고요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가 99.5%, 대부분이 이삼십대 여성이지만 십대 아동·청소년도 17%나 됩니다. 특히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서 강제 복송된 여성들은 수감 시설에서 체장검사를 해서 몸을 다 수색·검사하면서 성폭력 당하고 심지어 강제 낙태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인권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깐 우리 직무범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성평등가족부의 직무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국민과 주권 대상 양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법적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해서 유엔에서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주무 부처로 직무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히 성평등가족부 예하에 여성인권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 과정에 젠더 폭력 및 상담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지원 사업 등을 포괄해서, 저희가 늘 지향하는 것은 북한을 영원히 적으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국가를 포섭하겠다, 하나의 통일국가로 가려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면 그들이 성폭력 상태로 놓여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평등가족부가 유엔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주희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성평등가족부가 시작하는 마당에 직무범위로 인식을 하셔서 넓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희가 법안 논의를 빨리 해야겠어요. 너무 생산적인 말씀들을 주셔서 빨리 법안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오늘 굉장히 건설적인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아마 법안심 의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결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년도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강선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김건, 손솔, 조지연, 박지혜, 임종득, 강선영, 이광희, 이주희, 이수진, 정춘생, 전은수, 김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상언 강선영 김 건 김남근 김소희 김정재 박지혜 백혜련 손 술 이광희
이수진 이연희 이주희 임종득 전은수 정춘생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강준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성평등정책관 조민경

고용평등정책관 김민아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 김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광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김진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6)

7월 31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5)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3)

8월 7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0)

이상 2건 8월 11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0)

8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7)

이상 2건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6571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8. 11.	시행령
제1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7. 22.	시행규칙
제14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 7. 29.	시행규칙